

五感으로 체험하는 불교문화

서울시와 조계종이 공동주최, 201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서울시와 조계종이 함께 주최하는 2015년 불교박람회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명칭을 변경 대중들을 찾아가는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 해외 업체 참여로 국내외 불교문화와 산업을 총망라하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230여 업체 참여, 400여 부스가 운영돼 역대 최고를 자랑하는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어떻게 관람하고 무엇을 체험하면 좋을까? 불교박람회의 주요 코너들을 소개해본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외국인 관람객이 전시를 관람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찰음식 체험에 강연까지

“사찰음식대축제”는 박람회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번 축제에서는 사찰음식 특화사찰 및 전문운영사찰로 지정된 11개 사찰과 전문가 스님들이 직접 참여해 전시, 강연, 시식, 체험 등을 진행한다. 사찰김치, 큰스님 밥상, 계절별 한상차림 등의 사찰음식 전시를 비롯해 전국 75개 사찰의 사찰음식 조리법 영상과 사찰음식 웹툰 등을 선보인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찰음식 체험·시식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사찰음식 비빔밥 퍼포먼스, 외국인 참가자를 위한 발우공양, 발우공양을 모티브로 한 모션 게임 등 이색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전체 스님, 원상 스님, 우관 스님, 적문 스님 등의 사찰음식 강연도 이어진다. 3월 13일에는 사찰음식 관광마케팅과 관광 자원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포럼이, 3월 14일에는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과 현황 및 인도·중국·일본 수행자의 음식과 식사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차 학술포럼이 진행된다.

△전통문화 우수상품을 엿보다

전통산업과 불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으로 ‘전통문화우수상품전’도 진행된다. 참가업체들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대상은 조계종 총무원장상, 특별상은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고 특별전시도 열린다. 올해 대상은 ‘웃앤웃’의 ‘오색 천연옷

중국 일본 등 해외 업체 참가 주목
스님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축제
웃길 염주 등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아트페스티벌, 전통 장인전 등 풍성

칠 108염주’에 돌아갔다. 이 제품은 100% 천연 옷을 계량화된 전통기법으로 10회 이상 칠하고 건조시켜 염주를 제작 무게가 가볍고 광택이 변하지 않는다. 또한 전통의 색인 ‘오방색’을 표현하기 위해 친환경 안료를 사용해 주목된다. 특별상에는 성종사의 ‘컬러법종’이 선정됐다. 한국 불교문화와 예술을 대표하는 범종의 미니 어저 작품으로 전통방식의 계급과 채색을 통해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했다.

△해외 업체 참여로 불거리 다양

이번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중국, 일본, 스리랑카, 독일 등 해외 업체의 참가로 국제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측은 “지나해 불교박람회는 중국의 하문불교박람회에 참여해 한국의 불교를 소개한 바 있다. 올해는 하문불교박람회에 참여했던

6개의 중국 업체가 총 10개 부스를 꾸밀 예정이다. 이들은 불상 침향 조각 등의 불교 용품을 선보인다. 또한 중국 푸젠성, 일본, 스리랑카 등의 업체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미술 축제 붓아트페스티벌

전통과 현대의 만남, 국내 최대의 불교 미술축제 붓아트페스티벌이 전년 대비 약 1.5배 확장된 약 80명의 작가(57부스)의 참여로 더욱 알차게 진행된다. 전통 불교예술 작품전, 선아트특별전, 전통장인전, 아트도네이션프로젝트 50만원전 등이 마련되어 장인들을 찾아가는, 독일 업체 자이트 주 제네 갤러리가 참여 유럽의 불교문화도 소개한다. 기획전 ‘서울의 공간, 서울의 장인’전은 전통장인의 명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서울의 공간을 주제로 한 전통장인의 공예 작품(기와, 한옥 공포, 나전 칠 소반, 나전칠함,매듭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변화장 제 121호 이근복, 한식공공 2236호 이광복, 중요무형문화재 침선장 제89호 구혜자,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나전장 제14호 정명재, 서울시 지정무형 문화재 소목장 제26호 심용식 씨 등이 참가한다. (02)2231-201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붓아트페스티벌에는 80여 작가가 참가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번 박람회에는 230여 업체가 참여 400여 부스를 운영한다.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영화 '인터스텔라'는 인류 멸망의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 쿠퍼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담았다.

만나면 헤어지고 떠나면 다시 돌아온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

천만 관객을 넘기며 화제를 모은 '인터스텔라'는 더 이상 과학의 발전을 믿지 않는 지구의 위기를 그려낸다.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종말의 위기에 처한 지구의 현실'을 보여준다.

인과의 원리를 망각한 20세기 인간들은 지구의 자원을 마음껏 쓰면서 지구의 아픔은 외면했다. 결국 병든 지구는 인간에게 복수해오기 시작했다. 온 세상은 먼지에 뒤덮였다. 호홉근관과 식량부족으로 인류는 위협 당하고 나서며 해체되었다. 남은 식량은 옥수수뿐이며 인간은 더 이상 과학을 믿지 않는다. 이들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다. 생존할 수 있으나 없으나, 지구라는 행성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초반에 던지는 미션은 다분히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는 영화의 카피처럼 주인공 쿠퍼(매튜 맥커너히)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또 인류를 살리기 위해 대원들과 함께 탐험을 떠난다.

이들에게는 두 개의 플랜이 주어졌다. 플랜A는 인류가 모두 이동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의 행성을 찾는 것이다. 플랜B는 탐사하는 동안 인류가 모두 멸종할 것에 대비해 새로운 행성에 생명체를 이식하는 일이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탐험을 선택한 주인공 쿠퍼는 필사적으로 플랜A를 성공시켜야 한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열쇠는 시간과 중력이다. 성간 여행을 하는 이들이 찾는 행성은 중력에 따라 시간 차이가 달라진다. 이대로라면 쿠퍼가 지구로 돌아가기

도 전에 가족들은 이미 늙어 생을 마감할 지 모른다. 여주인공 아멜리아(앤 해서웨이)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거스를 수는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되돌릴 수 없

종말에 처한 인류 구하는 탐험
시공간 초월하는 마음의 힘으로
위기 넘기며 가족애 그려내 감동
존재의 근원 찾는 새로운 여행 떠나



인터스텔라는 성간 여행을 통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다.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하는 영화는 많지만 인터스텔라는 각 행성마다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설정으로 애절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극적 장치를 활용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낸다.

가족을 만나고 싶은 주인공 쿠퍼의 마음은 간절하다. 그 마음은 결국 5차원의 세계에 진입해 어린 딸을 마주하게 되지 만 시간을 거스를 수 없기에 다가갈 수 없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딸과 조우하긴 한다. 간절한 마음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뒤엉켜 있었고 서로의 사랑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았다. 딸과 아버지로 만났지만 시절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그들은 이미 부녀의 관계를 떠났다. 법화경에는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去者必返)’이라는 말이 나온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헤어져 이들에게 그리움의 마음은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그 정점에 닿아 고비를 넘기면 그 마음도 머물다 사라질뿐이다.

쿠퍼의 가족 역시 그리움의 힘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 강한 마음의 힘이 돌을 만나게 했고 또 거대한 미션을 완성해 냈으며 그 마음이 다하니 헤어질 때가 온 것이다.

쿠퍼는 다시 길을 떠난다. 우주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세계를 향해. 그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여행 와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처음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주인공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는 듯하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이제 쿠퍼는 화두를 안았다. 길을 떠나는 수행승처럼 그는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할 것이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만 그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은 고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해답을 줄 것이다.

정혜숙 기자

명품승복(가사전문)

※ 광고 홍보기간 동안 할인해드립니다.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흥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물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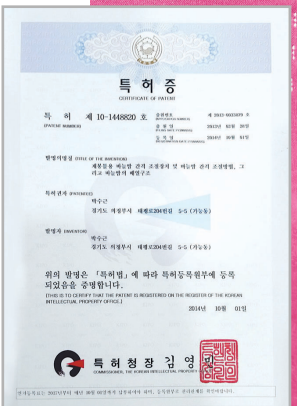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상) 합장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 1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2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 3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행복이 가득한 효소

병마의 후유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드십니까?
몸이 차고 늘 피곤하여 의욕이 없으십니까?
손발이 차고 속이 답답하여 소화가 힘드십니까?

몸속의 독소를 해독 배설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 보십시오.
무기력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살맛이 납니다.

- 15일의 기적
- 면역력 업그레이드
- 세계 최초 씹어먹는 효소



피로가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온몸이 따뜻해지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세계 최초 꼭꼭 씹어 먹는 효소
「15일의 기적」을 선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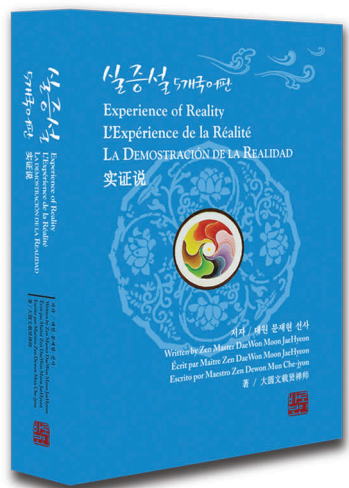
- 6년근 홍삼과 발골로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36만원
- 6년근 홍삼과 러시아산 녹용을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100만원
- 6년근 홍삼과 유기농 커피를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20만원
- 6년근 홍삼을 진하게 농축 발효한 당지 효소환 15g×90환. 60만원

※ 식품법 제 113조에 의하여 특월한 효능과 임상을 전하지 못합니다.

www.행복이가득한효소.com
경북 경산시 옥곡동 80번지 (장산로 1길 5)

1577-0891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세나라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찌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